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1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동계 올림픽 6개월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교체

뉴스1 김도용 기자

02

‘김연아의 꿈’은 사라지고... 학대의 악몽만 남았다

셜록 조아영 기자

03

평소엔 학자, 올림픽 댄 메달리스트... 생활 체육으로 대전환을

서울신문 박종원 기자

04

전학, 침묵,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에이스

한겨레 장필수 기자

05

학교 야구의 ‘엄석대’는 누가 만드나

체육시민연대 김현수 위원장

동계 올림픽 6개월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교체

뉴스1 김도용 기자(dyk0609@news1.kr)

2025.08.24 오전 07:00

사진=김선태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News1 박지혜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약 6개월 앞두고 김선태 전 중국대표팀 감독을 선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빙상연맹은 지난 20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윤재명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의 보직 변경을 결정하고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윤 감독은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으로부터 1개월 자격 정지를 받았으나,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감독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사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과 지도력 부재를 이유로 감독 교체를 결정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후임이 김선태 감독이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잡음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다. 현재 대표팀을 맡을 수 있는 지도자 가운데 김선태 감독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선태 감독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한국의 라이벌인 중국 대표팀을 맡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더불어 국가대표팀과 성남시청 등에서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황대헌(강원도청) 등 대표팀 주축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김선태 감독의 선임에 빙상계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01

빙상계 한 관계자는 "부당한 인사 절차다. 윤 감독의 경질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5개월 전 연맹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어떻게 감독직을 맡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감독은 앞서 '선수단 관리 소홀'로 1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김 감독은 2018 평창 대회 당시 심석희(서울시청)가 폭행당하고 선수촌을 이탈하자 이를 거짓 보고하고 은폐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2022 베이징 올림픽 당시 김선태 감독은 중국 텃세에 한국이 편파 판정 피해를 당할 때 침묵으로 일관해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23년에는 김 감독이 성남시청 지도자에 공모하자 빙상지도자연맹이 반대 성명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논란이 있지만 연맹은 김선태 감독 체제로 올림픽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연맹 측은 "해당 규정은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라면서 이번 선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도자 2명과 캐나다로 전지훈련을 떠난 상황이다. 이에 김선태 감독은 캐나다로 이동해 선수들과 만날지, 선수단이 귀국한 뒤 진천선수촌에서부터 지도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의 꿈’은 사라지고… 학대의 악몽만 남았다

셜록 조아영 기자(jjay@sherlockpress.com)

2025.08.25

사진=(셜록)

“살고 싶었어요.”

유채연(가명, 24)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채연 씨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쥐어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7일 그의 집에서 채연 씨를 만났다. 채연 씨는 김연아와 같은 국가대표를 꿈꾸던 피겨스케이팅 꿈나무였다. 아홉 살에 시작한 피겨스케이팅. 하지만 그는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무대를 누비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선수 생활을 끝냈다.

그에게 선수 시절의 기억은 기나긴 악몽으로 남아 있다. 채연 씨는 초등학교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빙상경기연맹 소속 김아영(38)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잠을 잘 못 자요. 새로 처방받은 약은 일주일이면 또 효과가 없어요. 약 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힘들어요.”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지도 벌써 13년째다. 지금도 채연 씨는 잠을 자다가 자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악몽을 꾸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갑자기 학대를 당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플래시백’ 증상 때문이다.

지난 5월 어느 날은 잠에서 깨보니, 방 안이 온통 피범벅이 돼 있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채연 씨는 자신이 언제 자해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우울 및 불안감, 자살사고 및 자살충동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
(2025. 7. 23. 유채연 심리평가보고서)**

채연 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트라우마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왔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김아영 코치는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메달을 딴 서민규(대구경신고) 선수를 배출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유명세까지 얻고 있다. 2023년 대구시장상을 받기도 했다.

“저는 죽기살기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김아영 코치가) 갑자기 화가 나면 불러서 때려요. 이유를 붙이자면 ‘점프를 성공하지 못해서’였어요.”

폭행의 이유는 주로 ‘지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김아영 코치의 주먹이나 발이 그대로 날아오기도 했고, 스케이트화 날집 등으로 피멍이 들도록 맞기도 했다고 채연 씨는 증언했다.

채연 씨와 같은 여아들의 옷을 벗게 하기도 했다. 이유는 “점프에 실패해서”.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훈련을 받도록 지시했다.

최악의 사건은 2013년 캐나다 전지훈련에서 발생했다. 채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아영 코치는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 그리고 채연 씨에게 말했다.

“그냥 죽어. 니가 죽으면 엄마한테 천식으로 죽었다고 말하면 돼.”

채연 씨는 천식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채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코치가 약을 제한하기도 하고 치료기(네블라이저) 사용도 막은 적 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이유로.

채연 씨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순간에 대해 증언했다. 김아영 코치가 채연 씨의 입 안에 가위 한 쪽 날을 집어넣고 “입을 자르겠다”고 말했다는 것. 그밖에도 훈련 도중 채연 씨의 배를 손톱으로 꼬집어 살점을 잡아뜯기도 했다. 학대 피해자는 채연 씨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지금 가장 억울한 건,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고, 아무 대처도 못했다는 것. 또 하필 CCTV가 없는 화장실 같은 곳,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주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캐나다 전지훈련 이후, 채연 씨는 계속 악몽을 꿔다.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목을 조르는 증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채연 씨는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없었다.

“(김아영 코치가) ‘엄마한테 말하면 헛바닥 자른다, 죽일 거다’라는 말을 쉽게 했어요.”

결국 학대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어머니 손미영(가명) 씨도 뒤늦게 전지훈련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됐다. 하지만 손 씨는 팀을 옮기자는 말을 바로 하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채연 씨가 ‘테라뚜렛증후군’ 증상이 시작된 건 아홉 살 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틱 증상이 심했다. 용하다는 의사와 병원을 찾아 전국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다.

2010년은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해였다. 그해 겨울 채연 씨는 문득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피겨스케이팅이 가당키나 했겠어요? 그래도 딱 한 번만 스케이트장에 가보고 안 받아주면 포기할 마음으로 갔죠.”(어머니 손미영 씨)

손 씨는 딸을 데리고 대구의 한 스케이트장으로 향했다. 그때 소개받은 코치가 바로 김아영이었다.

피겨스케이팅을 배운 뒤로 틱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손 씨는 “기적을 맛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채연 씨의 자존감도 점차 회복됐다. 취미반에서 ‘선수반’으로 옮겼다. 몇 년 뒤에는 전국대회 2위라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채연이는 스케이트장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좋아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했어요. 천천히 활주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면 정말 좋아했어요.”(어머니 손미영 씨)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둘 순 없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하면서 계속 김 코치의 지도를 받는 것도 참기 힘든 일이었다. 다른 코치의 팀으로 옮기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친분이 있는 코치끼리는 서로 선수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불문율(?)에 가로막혔다.

“저는 못한 엄마였습니다. 채연이가 스케이트를 원하는 대로 못 타면 다시 틱 증상이 심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또 다시 김아영 코치를 찾아갔습니다.”(어머니 손미영 씨)

시간은 흘러 2016년 2월. 김아영 코치 팀 선수 부모들 사이에서 과거 전지훈련 당시 학대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손 씨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학대 정황을 다른 부모들에게 전했다. 그러자 김 코치로부터 ‘퇴출’ 통보가 왔다.

“김아영 코치는 제가 채연이의 거짓말을 거르지 않고 얘기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말했어요. 채연이를 거짓말쟁이, 망상증 환자 취급을 했어요.”(어머니 손미영 씨)

손미영 씨는 모욕감을 느꼈다. 김아영 코치를 만나 따졌다. 김 코치는 구체적인 학대 사실들은 인정하지 않다가, 대화 말미에 이렇게 답했다.

“사실. 채연이가 말한 거 사실이에요.”(2016. 2. 29. 김아영 코치-손미영 대화 녹취록)

손 씨는 김 코치를 고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겨스케이팅을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다른 코치의 팀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코치를 고소하면 새 팀에도 못 받아준다’는 조건 앞에서 고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모녀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두거나, 침묵하며 견디거나.

“김아영 코치는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야 되는 줄 알았고,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2016년부터 쪽 망상에 빠진 거짓말쟁이가 돼야 했습니다.”

채연 씨 틱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생활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아홉 살 때부터 품어온 태극마크의 꿈도 거기서 멈췄다.

스무 살 채연 씨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무력감,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았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학대의 트라우마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무너져갔다.

꼬이고 뒤틀린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으려면 결국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채연 씨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폭로하기로 했다.

“저는 죽으려고 (김 코치를) 고소한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말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은 용기 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난해 12월 채연 씨는 김 코치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빙상경기연맹에 징계요구서도 제출했다. 침묵을 깨고 나오는 데 13년이 걸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

고소 이후인 지난 2월, 채연 씨는 김아영 코치와 만났다. 김상윤 대구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만든 자리였다. 채연 씨는 김 코치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알았다.

“(김 코치가) 저한테 ‘죽지 말아달라’고 하고, ‘코치로 키워주겠다’ 그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건 인정도 사과도 아니잖아요.”

김아영 코치는 변호사를 통해 ‘이면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쓰는 대신, 경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간단한 내용만 적힌 또 다른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말이었다.

“사과가 아니라 (학대 사실을) 전부 인정만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도 인정도 안 하면서 이면 합의서를 얘기했던 거죠.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김상윤 대구빙상경기연맹 회장은 책임보다 회유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김 회장은 김 코치와 채연 씨 모녀를 불러모은 자리에서, “회장님(본인)은 채연이 편이다”, “무릎 꿇고 ‘봐줄래’ 이렇게 (부탁)할 생각을 하고 왔다” 등의 말을 했다. 심지어 채연 씨에게 “(나를) 회장 아빠라고 불러라”라는 말도 했다.

“너무 소름 돋았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회장 아빠’라고 부르라고...”

채연 씨 모녀와의 인터뷰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어머니 손미영 씨의 차를 타고 빙상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채연 씨 없이 둘뿐이었다. 손 씨가 한숨을 내뿔듯 조용히 말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고.

**“저는 공범이었어요. 채연이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피겨스케이팅 시키는 부모들과 연락이 닿으면 꼭 말해요.
아이들 잘 살피라고.”**(어머니 손미영 씨)

채연 씨의 ‘아빠’를 자처했던 대구빙상경기연맹 회장. 이후로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대구빙상경기연맹은 김아영 코치에 대한 징계 절차를 8개월째 보류 중이다. 지난 18일 대구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고소 사건) 판결이 나오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기자와 통화한 김상윤 대구빙상경기연맹 회장은 “(갈등 해결은) 법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며,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 (사건 판결) 결과가 나와야 징계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채연 씨에게 본인을 ‘회장 아빠’라 부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체육회도 “최종 판결이 나오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은 같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도 “대구빙상경기연맹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채연 씨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또 다른 학대 피해자들이 쓴 사실확인서와 탄원서도 경찰에 제출됐다.

지난 4월 3일 대구가정법원은 김아영 코치에게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2개월간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과 교육을 위탁한다는 내용. 임시조치는 아동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아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김 코치의 입장을 묻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로 질문을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나 답은 없었다. 지난 22일 김 코치의 주소지로 두 차례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 그날 김 코치는 문자메시지로, “출산 후 회복 중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며 반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03

평소엔 학자, 올림픽 땀 메달리스트... 생활 체육으로 대전환을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서울신문 박종원 기자(johncorners@sportsworldi.com)

2025-08-21 00:44

사진=한일 고교야구부 등록 현황과 체육분야 정부 예산 추이(서울신문)

대한민국 체육은 애초 6·25전쟁 뒤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 집중 육성됐다. 체육 정책의 뿌리인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제정 당시 그 목적이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국민 스포츠' 지위를 다진 프로야구 역시 1982년 5공화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신군부는 혼란스러운 민심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고 대중의 사랑이 뜨거웠던 고교야구에 주목했다.

이런 배경에서 대중화된 각 체육 종목은 국민의 여가와 건전한 취미 활동을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전쟁터와 같았고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은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선수 개인의 인권은 물론 국제 대회에 나갈 대표 선발 과정, 종목별 협회 행정 등에서 '공정'과 같은 개념은 엘리트 체육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점차 시대가 변화하면서 엘리트 체육을 향한 사회 인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도 죄인이 된 양 시상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국민에게 사과했던 선배들과는 달리 승자를 축하해 주고, 주어진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수들이 속속 등장했다.

체육계 외부적으로는 엘리트 유망주의 학습권 강화 움직임이 일었다. 2010년 국가인권 위원회는 성과지상주의적 엘리트 체육의 폐단을 지적하며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한국 체육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을 ▲헌장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구성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3

정치권은 202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며 국가주의적 엘리트 중심 정책에서 국민 모두의 ‘생활 체육 시대’로 대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23년 12월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출범 당시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국가스포츠정책위를 발족했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던 당시 이기흥 회장 체제 대한체육회는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체육계 대표 단체가 없는 정책위는 1년 뒤인 지난해 12월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산됐고 이후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

생활 체육 실무를 집행하는 대한체육회의 관련 예산과 조직도 축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회장 체제 체육회의 방만·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올해 체육회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388억원 삭감한 2951억원을 배정했다. 생활 체육 진흥 예산은 지난해 1357억원에서 올해 514억원으로 62% 쪼그라들었다. 생활체육부·청소년체육부·스포츠클럽부 3개 부서로 구성됐던 체육회 생활체육본부 조직은 예산 축소에 따라 학교생활체육부와 스포츠클럽부 2개 부서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대립적 요소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부터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현우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체육 정책은 생활 체육을 지원하면 엘리트 체육은 지원이 줄어들고 성과를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10년 넘게 정책이 공회전하고 있다”면서 “엘리트와 생활 체육 통합 정책을 위해서는 체육인 중심의 현 정책위에 교육과 보건, 복지 전문가까지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년기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생활 체육에 바탕을 둔 선수가 올림픽을 비롯해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사례도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펜싱(플뢰레) 선수 리 키퍼는 켄터키대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이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펜싱을 취미로 시작했다.



03

도쿄올림픽 여자 사이클 도로 경주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아나 키젠호퍼의 ‘본업’은 수학자다.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스페인 카탈루냐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스위스 로잔연방공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올림픽을 준비했다.

2018년 4월 세계 최고 권위 마라톤 대회인 미국 보스턴마라톤에서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고교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가와우치 유키가 2시간 15분 58초 기록으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아시아인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01년 이봉주 이후 처음이었다. 가와우치는 고교 시절까지 육상을 전문으로 했지만 부상으로 일찍 꿈을 접었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달리기를 이어 갔다.

전학, 침묵,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에이스

한겨레 장필수 기자(feel@hani.co.kr)

2025-08-21 18:40

사진=2025년 8월5일 교내 야구장에서 경기도 평택 청담고와 연습경기를 하고 있는 충남 천안 북일고(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애들 사이에서 왕이에요. (...)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2025년 7월 충남 천안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정현수(18·가명)군은 천안 북일고등학교 야구부에서 1군에게 당했던 “괴로움”과 “따돌림”을 설명하다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정군은 2023년 2월 고교 입학 전 겨울전지훈련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입학 직후부터 해마다 감독·코치 등 학교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야구계 거인들’인 학교 어른들은 자꾸 이를 “사소한 말다툼”으로 봤다. 결국 참다 못한 정군의 아버지가 2025년 5월 1군을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 전직 유명 야구선수의 아들이기도 한 1군은 전국구 에이스로 평가받는 선수다. 2025년 9월17일 열리는 2026 한국 프로야구(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후보로 꼽히는, 북일고 야구부의 얼굴이다.

변호인단 꾸려 학폭 신고 맞불 놓은 1군 아빠

고교 1학년 때도 신고하려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야구부장(야구부 담당 교사 노아무개씨)의 중재로 1군의 부모가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25년 5월 학폭 처리 과정의 분위기는 달랐다. 1군은 법무법인을 고용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았다. 1군이 되레 정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는 한편, 수려한 문장이 가득한 야구부 안팎의 탄원서도 수십 장 확보해 제출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학폭 심의에 대응한 정군이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괴롭힘을 고발했고 친구 10여 명이 ‘1군의 괴롭힘은 사실’ ‘1군의 신고는 거짓’이라고 탄원서를 써줬지만, 교육청 판단은 달랐다. 7월10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폭 아님’ 결정을 내렸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작성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를 보면, 심의위원회는 2023~2024년 1군의 정군을 향한 △언어폭력(돼지 새×, ×신 같은 새× 등) △각종 심부름 △따돌림(동료·후배들에게 ‘재량 말하지 마라’ ‘1학년에게 이미지 세탁한다’ ‘무시해라’ 등의 발언)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군은 ‘학폭 아님’ 결과를 놓고선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2023년 3월 교내 야구부장에게 ㄱ군의 괴롭힘을 처음 신고했을 때도, 2024년 1월 일본 겨울전지훈련 도중 차일목 야구부 코치에게 울면서 달려갔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다. 2023년에는 “너도 잘못이 있잖아”라는 말을 들었고, 2024년에는 “화해 안 하면 시합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경고에 화해해야만 했다고 한다. “저는 경찰서를 빨리 가고 싶어요.” 정군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2025년 8월14일 정군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 ㄱ군을 모욕·명예훼손·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ㄱ군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아들이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처분을 받았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오고 싶지 않았다.”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 학교에서 야구를 계속해야 하니까” 물어두려 했던 사실까지 이제는 모두 꺼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한다.

“샤워 사진 억지로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줘”

한겨레21의 취재에 응한 아버지는 학폭위에는 신고하지 않았던 피해 사실까지 내놓았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 되리라” 믿었던 순진함을 후회한다고 했다. 정군 또한 취재진을 만나 학폭위에서 차마 밝히지 못하고 마음속에 숨겨둔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정군과 ㄱ군은 2023년 2월 북일고 입학을 앞두고 열린 거제도 겨울전지훈련에서 처음 났다. 처음에는 친했지만, ㄱ군이 정군을 상대로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처음은 빨래나 식사 심부름으로 시작했다. “간식 가져와라’ ‘빨래해라’ 같은 잔심부름부터 밥 먹을 때도 주문 번호가 나오면 본인은 앉아 있으면서 저한테...” 정군은 말끝을 흐렸다.

갈등은 욕실에서 샤워하는 정군의 알몸을 ㄱ군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폭발했다. 훈련 기간에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됐는데, ㄱ군이 몰래 휴대전화를 들고 왔다. 정군은 “막 심부름을 거절할 즈음이었다.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씻는데, 젓가락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문고리에 있는 구멍에 쇠젓가락을 넣고 돌려서 (들어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ㄱ이) 애들한테 ‘이 새× 이거 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찍은 걸 자랑하듯이 보여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 이상” 알몸 촬영이 계속되자, 정군은 가까스로 ㄱ군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자신의 알몸 영상과 사진을 삭제했다. 정군은 “기종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톰브라운 케이스의 아이폰11 프로 회색이었다. 이것만 지운다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정군은 당시 영상과 사진을 봤던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보면 창피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빨리 휴대전화를 뺏고 싶었다. ㄱ이 나보다 키가 커서 어떻게든 뺏으려 손을 뻗어도 어려워 ㄱ이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타이밍에 뺏어서 삭제했다”고 돌아섰다.

처음엔 신고 말렸던 아버지 “계속 운동해야 하니까”

정군은 휴대전화 알몸 사진 삭제 즈음부터 “ㄱ의 욕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정군은 “거제도 훈련에 다녀와서 돼지 새×부터 시작해 ×신 같은 새×,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 등 아이들 앞에서 욕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3월 정군은 입학하자마자 피해를 호소했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막아섰다. “1학년이었잖아요. 미래를 위해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당시만 해도 교내 상담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정군의 생각은 달랐다. “처음 아버지에게 야구부장이 아닌, 교육청에 바로 가자고 했다. 이유는 (욕설과 괴롭힘) 얘기를 해도 (조처가) 안 될 게 뻔해서 그랬다. 내가 석 달 동안 겪어봐서 이 시스템을 아니 야구부장을 거치지 말자고 했다.” 야구부 학생은 야구부장을 통해서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사건을 접한 야구부장은 ㄱ군과 정군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했다. 일단 정군은 욕설과 심부름 등 피해 사실만을 적었다. 이를 계기로 ㄱ군의 아버지와 정군의 아버지가 직접 통화하게 된다. “항상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들 잘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좀더 제가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23일 ㄱ군의 아버지는 정군의 어머니에게 사죄의 의미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 정군은 심적 고통으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야구부 훈련에 불참했다.

정군과 아버지는 ㄱ군의 알몸 촬영 사실을 한겨레21에 처음 공개한다고 했다. 정군과 그의 부모는 왜 2년 반이 지나서야 이 사안을 외부에 밝힌 것일까. 정군은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군의 아버지는 “그때는 아들이 1학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황이었다. 2학년, 3학년 동안 계속 운동도 해야 했다”며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욕설 촬영이) 문제가 되면 아들을 전학 보내거나 야구부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학 간 후배 “말한 적 없다,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이는 정군뿐이 아니다. ㄱ군의 1년 후배인 권재영(17·가명)군은 ‘언제부터 괴롭힘을 당했나’라는 한겨레21의 질문에 2024년 1월 북일고 일본 겨울전지훈련 당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일’이 있고 넉 달 뒤인 5월, 권군은 결국 야구를 그만두고 전학을 갔다.

권군은 ㄱ군이 자신을 향해 “은근한 왕따를 시키”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권군 역시 정군처럼 야구부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감독 또는 코치에게 이 사실을 알렸나’라는 물음에 “말한 적 없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런 권군은 2025년 5월 정군이 ㄱ군을 학폭으로 신고할 때 동참했다. ㄱ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계기와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진술서를 학폭위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ㄱ형 때문에 학교에서 말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과 왕따로 인해 버티기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권군이 ㄱ군의 타깃이 된 이유는 정군을 도와서다. 야구부 차일목 코치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증인’을 색출했고 그 과정에서 권군이 정군을 도왔다는 사실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정군이 ㄱ군에게 당한 피해를 알린) 다음날 차 코치가 1학년을 전부 모은 자리에서 ‘(ㄱ군이 후배들에게 정군을 욕했다는 사실을) 정현수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손들라’고 말해 나와 임윤성(17·가명)이 손을 들었다. 그 뒤 ㄱ군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정군은 “2023년 야구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부터 ㄱ이 ‘정현수는 뭐든 다 일러바치니 말을 섞지 마라’면서 동기와 후배들까지 회유했다”며 “이때부터 애들이 저를 피하고 말도 섞지 않았다. 저와 같이 다니는 후배를 향해선 ‘저 새×랑 붙어 다니지 마’ ‘재 무시해라’라고 말하며 떼어냈다”고 주장했다. 정군은 “아이들이 피해서 더그아웃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혼자 하교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권군은 “ㄱ형이 시× 새×, ×신 새×라고 말하며 ‘너도 (정현수와) 똑같이 만들어줄까’라고 했다”며 “(사건 뒤) 뒤에서 ‘재 무시해라’라고 말하면서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운동장을 정리할 때 두 명이 함께 한 번에 끝낼 일을 나 혼자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다”고 털어냈다. 그는 “형들이 다가오지 않았다”며 “야구도 잘 안돼 힘든 상황이었는데,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껴서 결국 야구를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증거 수집했던 임군 아버지 “개입하고 싶지 않다”

임윤성군이 당한 방식도 유사했다. ㄱ군은 2024년 1월 일본 겨울전지훈련 기간에 후배인 권군과 임군이 있는 방으로 찾아와 2시간 가까이 폭언했고, 야구장과 숙소를 오가는 길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임군을 앉히고 욕설을 했다. 권군은 “숙소에서 임윤성과 같은 방을 썼는데, 밤마다 임윤성이 ‘ㄱ형 때문에 힘들다. 한국에 가면 야구를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고 말했다”며 “ㄱ형이 임윤성을 앉혀놓고, ‘시× 새×’는 당연하고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한 새×’ 등 엄청 심한 욕을 많이 했다. 그때마다 임윤성은 고개만 숙이고 ‘죄송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돌아와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임군은 부모에게 ‘팔이 아프다’며 재활을 요구하거나 ‘전학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군의 아버지는 권군, 정군에게 수차례 전화해 아들과 관련한 괴롭힘 정황을 파악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정신과 진료에서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자, 임군의 아버지는 ㄱ군의 부모와 차 코치 등에게 전화해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권군은 “임윤성의 아버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다. (학폭) 신고를 하면 증언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연락이 몇 번 왔다. ‘우리 애가 괴롭힘을 당하고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임군의 아버지는 한겨레21이 연락하자 “(학폭 사건에) 개입, 관계하고 싶지 않다”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 코치는 한겨레21을 만나 ‘코치가 자신과 임군의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권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학생들이) 단체로 모인 상황에서 (두 학생의 신분을) 노출시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확실하지 않은 일을 어느 사람한테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ㄱ군과 정군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군의 입을 통해 권군과 임군의 이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군과 ㄱ군을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권군과 임군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ㄱ군의 험담을 알린 자가) 누군지 알아야 했다”고 답했다.

‘임군의 피해 사실도 인지했나’라는 물음에 차 코치는 “1학년 말(2024년)쯤 (임군 아버지가) 전학 간다고 엄청 말하고, 임군이 병원 다니고 그럴 때였다. 임군이 ‘멘탈이 흔들린다’고 했고 나중에 알게 된 게 ㄱ군과 그런 일이 있어서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임군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때 ‘아버님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셨던 게 절대 이거(괴롭힘)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천안 북일고 야구부 학교폭력 논란 관련자들

등장인물	과거 행위 또는 현재 입장
정군 (18·3학년·가명)	가해자로 지목됨. 유명 야구선수 출신인 아버지가 인터뷰 대응
정현수 (18·3학년·가명)	학폭 신고 뒤 경찰 고소. 본인과 아버지가 인터뷰 참여
권재영 (17·2학년·가명)	2024년 5월 야구 그만두고 전학. 본인만 인터뷰 참여
임윤성 (17·2학년·가명)	야구부 활동 중. 피해 상황 녹취 확인되지만 본인·부모 모두 인터뷰 거절
김옥선 교장	인터뷰에서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할지 몰랐다”고 밝힘
야구부장 (교사)	정군 등 야구부 피해자 상담 담당 관련 기록 학폭위에 제출 안 함
이상군 감독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다”고 밝힘
차일목 코치	“화해 안 하면 시합에 내보내지 않겠다” 했다고 정군 주장

그래픽 장광석

야구부 상담 전담하지만 기록조차 안 남긴 야구부장

한화그룹 재단 산하인 천안 북일고는 야구 명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봉황대기, 청룡기, 황금사자기 등 주요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이력이 있다.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라, 야구 유망주가 기숙사 생활을 감수하고서라도 입학하는 곳이다. 야구부는 24시간 함께 지내고 방학 때도 함께 훈련한다.

유명 프로야구 스타들의 산실인 북일고지만, 야구부 학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섬세하지 못했다. 김옥선 북일고 교장은 한겨레21을 만나 “야구부와 학교 간 소통은 수시로 이뤄진다”고 했는데, 정군의 학폭 사건만 처리했을 뿐 임군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간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일고 노아무개 야구부장은 2023년 정군이 7군의 괴롭힘을 신고한 내용을 당시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김 교장은 “1학년 당시에는 야구 부장이 불러서 훈계하고 타이르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당시 학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야구부의 보고 매뉴얼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내 상담 전담 선생님이 따로 있지만, 야구부는 이용하지 않는다. 상담은 야구부장으로 일원화돼 있다. 정군은 “아침 조회 시간을 제외하곤 담임선생님을 마주칠 일이 없다. 상담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갈 생각을 아예 못한다. 학기 초 담임선생님 상담이 있지만, 야구부는 안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담 권한을 부여받은 야구부장이 상담 내용 일체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구부장은 한겨레21과 만나 “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한다”면서도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군이 2023년 처음 정식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이를 기록으로 남겼나’라는 물음에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군은 2023년 야구부장에게 처음 괴롭힘을 토로했을 때 “야구부장의 지시로 나는 진술서 두 장을, 7군은 한 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학폭 전담조사관은 정군, 7군과 한 면담을 통해 2023년 두 학생이 야구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진술서를 확보하지는 않았다. 야구부장에게도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비화할지 몰랐다”... 구명 난 대응 시스템

학폭 신고 접수 뒤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독과 코치진이 학폭 신고 뒤 관련자들을 함께 불러 수차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교내 학폭 매뉴얼상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끼리 분열된 상황이니 감독과 코치가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군과 ㄱ군을 분리하지 않은 배경을 묻자 “정군 아버지가 정군과 ㄱ군 모두를 야구부에서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례가 없어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변을 받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구부의 정점에 있는 이상군 감독은 한겨레21과 만나 일련의 사태를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했다. “진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저나 코치에게 와서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인지를 못한 거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차 코치 역시 “이렇게 문제가 되니 좀 당황스럽다”고 거들었다.

학교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김 교장은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오간 내용이나 단어들로 봤을 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단순히 친구들 간 운동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야구부장과 감독 역시 그 정도 선에서 해결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할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은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장은 “대한민국의 운동부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야구 쪽에서는 ‘거의 매장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학생과 부모 모두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ㄱ군을 향한 코치와 졸업생의 시선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차일목 코치는 “(아버지가) 유명인이고 야구인이다보니 남들이 봤을 때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더 조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일고 졸업생 ㄴ씨는 “감독님이 특별히 예뻐한다 해야 하나? 딱히 선수들한테 엄청 신경 쓰는 분이 아닌데 ㄱ군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말했다.

정군, 권군은 야구부 내에서 ㄱ군의 영향력과 위상이 특별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군은 “ㄱ군 위주로 거의 모든 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21을 만난 한 학부모는 “ㄱ군과 잘 지내는 친구가 많다. 학폭이 아니라고 판명 난 사안을 왜 취재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ㄱ군 아버지 “이미지 흠집 내고 싶어 하는 듯”

ㄱ군의 아버지는 한겨레21과 만나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앞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학폭위가 열린 뒤 3개월간의 시간을 놓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내가 유명인이라서 이렇게 아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든 아들의 이미지에 스크래치(흠집)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ㄱ군의 어머니 역시 “기사가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아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ㄱ군의 아버지는 욕설 촬영 등 피해자들의 주장을 놓고 사실 확인 및 의견을 묻는 말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답변했다. 이 법무법인은 “학폭위와 철저한 관련자 등의 조사를 통해 ‘학폭아님’으로 이미 최종 결론이 났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의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2차 가해를 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법무법인은 이어 “ㄱ군은 야구를 좋아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꿈인 평범한 학생 선수다. 평생 꿈꿔왔던 프로선수로서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허위 사실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꿈이 좌절되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될 것”이라며 “ㄱ군과 가족이 대중에 잘 알려져 있는 점을 기회로 (정군 등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ㄱ군의 이미지를 실추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는지 여부를 부디 면밀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정군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정군은 5월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손목 재활을 이유로 오전 학교 수업만 받고, 야구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게 ㄱ 때문이라는 걸 애들은 알고 있어요. 부딪치고 싶지 않고 두려워요. 대학 가서 야구를 계속하고 싶지만, 모르겠어요. 야구만 10년 죽어라 했는데 망한 것 같아요.”

학교 야구의 ‘엄석대’는 누가 만드나

체육시민연대 김현수 위원장

2025-08-19 10:43

사진=2021년 6월 한 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열중쉬어를 한 채 감독의 훈계를 듣고 있다(김현수 제공)

장면 하나.

코치는 선수들을 집합시켰다. 한 선수를 앞에 세워두고 다른 선수들에게 묻는다. “야 니네들, 애랑 같이 운동 계속할 수 있겠냐?” 집단따돌림을 당하던 선수가 학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자 벌어진 일이다. 코치는 ‘중재’하려 했다는 변명을 했다.

장면 둘.

선수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팀이 해체되게 생겼으니까 여러 사람 피해 주지 말고 팀에서 좀 나가줬으면 해요.” 팀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당한 선수가 학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이 팀 해체를 언급한 뒤 벌어진 일이다.

장면 셋.

가해자 조사에 뜬금없이 학교장이 동석했다.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제가 따끔히 혼냈으니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의 혐의는 학창 시절 후배의 속옷까지 벗기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한 끔찍한 성폭력이었다. 가해자는 당시 함께 웃었다며 ‘장난’이라고 했다.

지도자에서 선수로 바뀐 가해 당사자

이 세 장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할 때 직접 접한 사건 중 일부다. 언급된 피해자는 모두 일찌감치 운동을 그만뒀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는 체육계의 불합리한 관행은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억압구조를 만들어왔다. ‘왜 피해가 있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았냐?’ 라는 말도 학교 관리자나 지도자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데, 체육계가 피해를 볼 때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오늘날 ‘스포츠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을지 모른다.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보면, 과거 지도자가 행하던 인권침해가 선수와 선수 간의 관계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인권 감수성이 다소 향상됨에 따라 지도자들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동료 선수들끼리 긴 시간 함께 지내는 폐쇄적인 훈련 문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급생이더라도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팀 내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이는 곧 선수 간 서열화로 이어지고 상명하복, 폭력, 불합리한 통제 등 인권침해를 낳는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운동부 생활의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들은 운동부 내 민주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질서와 규율에 힘을 보탠다. 힘 있는 선수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통제와 강압이 만연하게 되고, 꼴 보기 싫은 다른 선수를 따돌림할 것을 지시하거나, 자기편에 선 동조자들의 비호 아래 (성)폭력은 곧 ‘장난’으로 둔갑하기 마련이다. 이런 권력관계는 학생들 사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서열 관계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잘하는’ 선수의 득을 보는 학교 관리자도, 지도자도, 선수도 그리고 학부모까지 동조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낸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학교에서 군림하는 급장 ‘엄석대’가 등장한다. 엄석대는 선생님이 보기에 모범적이고 학업 성적도 출중한 학생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강압, 그리고 권력을 바탕으로 한 군림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엄석대에게 대항하는 것은 학교라는 생태계의 ‘질서’를 흔드는 일로 여겨져 그것을 의심하거나 바로잡기보다는 권력에의 순응을 통해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곧 ‘현명한’ 행동으로 여겨졌다. 외부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문제가 불거지는 일조차 없었을 이런 문제들은 체육계에도 만연해 있다.

누군가의 사익 위해 ‘불가피함’으로 포장된 희생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의 원인이 폐쇄성에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체육인들의 ‘현장’에는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질서가 존재하고, 이 질서는 인권 영역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기준과 원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밖으로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일종의 동질감도 폐쇄성을 키우는 또 다른 원인이다. 혹여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더라도 이를 외부로 알릴 수 없다.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되돌아올지 그동안 눈으로 보고 이야기로 전해 들으며 몸속 깊이 체득돼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흑독한 환경은 그것이 '현명한' 행동이라는 암묵적인 동조 속에서 피해자의 침묵을 이끌어내고야 만다. 소설의 주인공 한병태가 엄석대를 끝까지 고발하지 못하고, 먼 훗날 비참한 상태의 엄석대를 마주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듯 말이다. 결코 해결될 수 없어 보였던 이 문제는 먼 훗날 후회와 회한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지언정 가슴속에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스포츠계의 폐쇄적 구조는 승리 지상주의라는 결과주의적 사고와 인식 속에서 싹튼다. 국가 지원으로 살아가는 한국 스포츠는 경기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 늘리기에 몰두하는 한편, 그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나 인권침해는 진학과 취업, 크게는 '국위선양'이라는 대의 앞에, 또는 누군가의 사익 앞에 '불가피함'으로 포장된 채 희생으로 이어진다. 법과 도덕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여지없이 그 불가피한 희생은 일어나고야 만다. 이런 관행 속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보다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 '스포츠=결과'라는 가르침을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다.

고교야구에서 나타나는 동료 간 괴롭힘 사건은 소설 속 '엄석대'가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같다. 다수가 패거리를 이루어 힘없는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 한 명이 다수를 괴롭힌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팀 내에서 이를 고발할 용기는 이른바 '질서'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수가 침묵과 동조를 선택한다. 끊임없는 2차 가해 속에 피해자는 더욱 위축되고 '엄석대'는 더 당당해지고 있다.

유망주들의 비참한 말로, 안 보이나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수가 공범인 그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 야구 전체를 좀먹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야구판에서 소설 속 엄석대와 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선수를 수도 없이 봐왔다. 학창 시절 유망했으나 전성기에 이르러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은 물론 음주운전, 폭력, 도박 등 되바라진 인성과 행동으로 스스로 무너져내린 모습을 말이다. 그럴 때마다 야구팬들이 '실력 이전에 인성'이라는, 선수의 본질이야말로 야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필수 조건임을 기어이 확인시켜줬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